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씨앗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굽 디자인 연구
- 차도구를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김 가 은

씨앗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굽 디자인 연구
- 차도구를 중심으로 -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김 가 은

인 준 서

김가은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한국의 차 문화는 단절과 부침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여오고 있으나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차 문화가 정착된 중국, 일본, 유럽의 경우 독특한 음용 방식에 의한 개성있는 차도구의 사용은 물론 새로운 차도구의 고안에 있어서도 차문화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되는 차도구의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차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조형적 표현의 소재 탐색과 굽이라는 요소에 착목(着目)하였다.

조형표현의 소재로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씨앗의 조형적 미감을 재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도형의 특질을 바탕으로 형상화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차도구의 제안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씨앗의 모티브를 굽에 해당하는 저부(底部)와 바닥면 등에 형상화 작업을 거쳐 독특한 조형적 미감과 실용성 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굽의 구체적 형태로서는 기존의 띠형의 굽과는 달리 절단과 조각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굽을 제시하였으며 도출된 굽의 이미지는 굽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적용하여 차도구 전체에서 씨앗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씨앗의 형상화 작업에 있어서는 씨앗의 실물형상을 바탕으로 간략화된 기하학적 도안에 의한 다양한 씨앗 형태의 굽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기서 도출된 씨앗 형태에 적합한 굽 종류를 제시하기 위하여 전해 내려오는 굽의 종류를 대상으로 분류하여 적합한 굽 종류를 선별하였다.

제작 방법에 있어서도 씨앗형상의 굽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조각방식의 모색과 유약의 색조 및 농담 등에 대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씨앗이라는 모티브가 굵이라는 기능적 역할은 물론 조형적 특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작품제작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여기서 도출된 굵의 일정한 형상이 차도구로서의 역할과 독특한 조형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등을 모색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을 전제로 새로운 차도구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2
II. 본론	3
1. 한국의 씨앗 형태와 조형성 연구	3
1) 한국의 씨앗 형태 분류와 특징	4
2) 한국 씨앗의 조형적 특징에 따른 도안화	7
2. 굵의 분류 및 조형성 연구	10
1) 굵의 의미와 기능	10
2) 굵의 형태분류 및 내용	12
3. 씨앗의 이미지를 적용한 굵 디자인과 이를 이용한 차 도구 디자인 · 17	
1) 씨앗의 이미지를 적용한 굵의 형상	17
2) 씨앗의 이미지가 굵에 적용된 차도구 및 작품해설	21
III. 결론	4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씨앗의 형태 분류	7
【표2】 씨앗의 특징에 따른 도안화 작업	10
【표3】 굽의 단면도와 특징	15
【표4】 조각 및 절단에 의한 수직굽과 안굽	17
【표5】 도안에 따른 굽의 형상	21

도판 목차

【도판1】 고배(高杯)의 예시	13
【도판2】 도자기 형태 명칭	14
【도판3】 “굽장식용기”의 사례	16
【도판4】 과형굽 먼치기	20

시작품 목차

【작품 1】 씨앗굽 찻잔 세트	23
【작품 2】 둥근 원통형 과형굽 다관 세트	24
【작품 3】 주자형 과형굽 다관 세트	25
【작품 4】 주자형 물방울굽 다관 세트	26
【작품 5】 가시굽 다관 세트	27
【작품 6】 상과형 방울굽 다관 세트	28
【작품 7】 후과형 방울굽 다관 세트	29
【작품 8】 후과형 강낭콩굽 다관 세트	30
【작품 9】 횡과형 강낭콩굽 다관 세트	31
【작품 10】 벚꽃잎굽 개완 세트	32
【작품 11】 바늘굽 저그 세트	33
【작품 12】 반달굽 다관 세트	34
【작품 13】 물방울굽 저그 세트	35
【작품 14】 백당굽 여행용 1인 다기	36
【작품 15】 과형굽 오일램프 세트	37
【작품 16】 씨앗굽 개치 세트	38
【작품 17】 상과형 과형굽 다관	39

I. 서 론

1. 연구목적

씨앗은 식물의 근원으로서 순환적인 생태 때문에 심미적인 대상으로 관찰되기보다는 의미적인 표현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씨앗은, 개체의 크기는 작지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로 자연적인 미감과 함께 다양하고 확실한 형태 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으로 개체마다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조형성이 높은 소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씨앗의 형상을 모티브로서 도자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굽은 도자기의 구조 중의 하나로써 동체의 저부에 위치하여 조형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기 쉬운 요소일 수 있으나 옛 도자기의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굽이 제작되었고 거기에는 도자기의 조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굽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굽의 조형적 표현을 위해서는 그림 또는 조각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씨앗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를 적용한다면 주로 기능적 역할로 인식되던 굽의 역할 외에 조형 표현 수단으로써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굽의 조형적 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씨앗이라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굽의 접지면이 조각된 차도구 제작을 통해 굽의 심미적인 형상을 연구하여 굽에 의한 새로운 조형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외에 차도구의 제작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잎차를 우려기 위해 사용되었던 다구의 구성을 기본으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음용 방식의 편의성 등을 가미한 차도구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식물의 씨앗을 모티브로한 굵의 조형 표현에 있어서는 크게 씨앗의 식물학적 특성 및 형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먼저 국내에 자생하는 씨앗을 대상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식물도감 등의 참고서적을 중심으로 형태 분류에 도표작성 및 도안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굵의 정확한 정의를 위하여 도자기의 구조 및 명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내려오는 굵의 종류를 그 특징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명칭 및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 씨앗의 형상적 이미지를 굵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굵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직립(直立)굵, 안굵, 평(平)굵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이하의 세분화된 굵들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굵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는 9종류의 씨앗 유형을 분류하여 간략화와 단순화의 등의 과정을 거쳐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도출된 도안을 바탕으로 굵의 접지면에 조각 등의 방법으로 형상화하였다.

제작방법에 있어서는 굵의 접지면에 씨앗의 형상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위주로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기물이 바로 놓였을 때 씨앗의 이미지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기에 씨앗형상의 조각이 놓여 지는 위치를 중심으로 면치기와 각치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씨앗의 형상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자기의 동체와 굵에 연결된 라인의 강조 등의 이유로 유약의 시유두께 등의 조정을 통한 농담표현을 모색하였다.

차도구로의 응용에 있어서는 응용 방식에 따른 디자인을 시도하였으며 굵의 형상화 작업에 있어서는 씨앗에서 도출된 9종류의 도안패턴을 각각의 차도구 세트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씨앗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차도구 제작을 시도하였다.

II. 본 론

1. 한국의 씨앗 형태와 조형성 연구

식물의 잎이나 꽃, 열매 등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조형성이 높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며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고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인간의 삶에 비유되기에 문학적 소재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통 토양 속에 묻혀있는 이미지와 일견 작고 단순한 형상으로 인하여 식물의 꽃이나 잎이 가지는 조형적 가치에 비해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도자 공예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이유로 조형적 표현의 수단보다는 의미적 표현의 소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나 조금만 내밀히 관찰을 한다면 이외의 조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에 있어서 개성적인 특징을 띄고 있으며 일부의 씨앗은 자연물임에도 불구하고 삼각형 또는 원기둥과 같은 이외의 기하학적 형상들도 보여진다. 또한 씨앗의 모양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다양하게 형성된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연물에서 나오는 곡선과 이와 이어지는 외형 라인이 가지는 조형성은 인공물과는 다른 조형적 미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미감이 담긴 곡선 또는 형상적 특징은 예술표현의 소재로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씨앗형상의 형태 분류와 도안화 작업을 통해 도자 제품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씨앗의 형태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씨앗 형태 분류와 특징

본 연구에서는 씨앗의 품종에 따른 조사범위와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찰 등의 조건으로 인해 씨앗의 분류에 있어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품종으로 한정하였다.

품종 분류에 있어서는 국립수목원에서 출간한 『한국의 야생식물 종자 도감』¹⁾을 참고하였다. 본 도감은 한국 토종식물 종자의 실물사진과 종자의 모양, 크기의 표시와 형태학 관점에서 종자형상의 도안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따라서 한국의 씨앗 지도 도감은 방대한 토종 종자의 종적 식별과 형태학을 위한 정보를 얻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도감에서는 종자의 형태 분류에 있어 원형, 삼각형, 원기둥형 등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총 23종류의 형태가 도형화하여 분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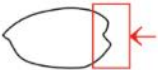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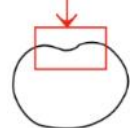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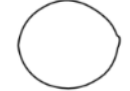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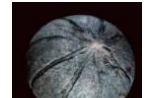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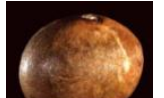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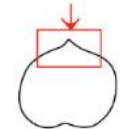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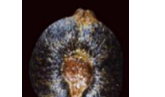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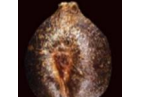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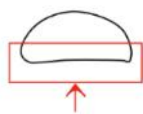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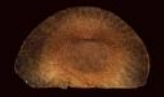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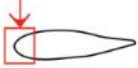








도감에서 정리한 종자의 형태적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형적 특징이 뚜렷한 종자의 형상을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작업의 모티브로 삼고자 하였다. 분류된 9개의 도형은 【표2】의 도안화된 도형에서 보여지듯 전체적인 형상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의 곡선적 미감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원형의 씨앗형상을 중심으로 변형된 형상들을 분류하였다.

원형을 중심으로 한 씨앗 형태 변형은 기학학적인 조형미를 띄고 있으며 기본적인 원형에서 늘려지거나 절단된 듯 또는 눌린듯한 모양으로써 직선보다는 곡선적인 느낌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씨앗이 가진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환경적, 생물학적인 분석을 통한 분류보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형상의 단면 실루엣을 가장 주된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1) 한국에서 자생하는 종자의 형태학과 생리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 씨앗 지도 서적. 국립수목원, 《한국의 야생식물 종자 도감》, 2017

【표1】 씨앗의 형태 분류

no	형상/씨앗명	구분기준점	유사 종자		
1					
	눈측백		먹넨출	질경이 택사	가막사리
2					
	오미자		새모래덩굴	갯황기	잔디갈고리
3					
	녹나무		곰의말채나무	산벚나무	민땡비씨리
4					
	지리실청사초		괭이눈	화살사초	독미나리
5					
	들메나무		부들	나래새	꼬리조팝나무
6					
	백당나무		까마귀머루	왕머루	좁은 어수리
7					
	가시오갈피		제비붓꽃	국화마	고욤나무
8					
	겨이삭		세대가리	쇠풀	김의털
9					
	구실жат밤나무		애기기린초	금강아지풀	모데미풀

이외에 씨앗의 형태에 있어 구별 점이 명확하게 보이고 도자기의 조형적 표현에 적합한 형태를 선별하여 분류하였다.

【표1】에서 보여지는 각 씨앗들의 중요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번 씨앗, 눈썹백형 : 타원형의 몸체에 얇은 쪽 부분에 쪼개진 모양으로 두 개의 뿔 같은 부분이 있는 형상으로써 마치 꽃잎을 연상시킨다.

2번 씨앗, 오미자형 : 타원형의 몸체에서 중심 부분이 눌러진 것처럼 홈이 패어있으며 형태적으로 강낭콩의 형태와 유사하다.

3번 씨앗, 녹나무형 : 패이거나 구부러진 부분 없이 돌기가 없는 완전한 구 형태이며 방울의 형태와 유사하다.

4번 씨앗, 지리실청사초형 : no.3과 같은 둥근 형태의 씨앗이지만 한 부분에서 길쭉한 돌기나, 줄기 형태가 튀어나와 있으며 과일의 꼭지와 같은 느낌을 준다.

5번 씨앗, 들메나무형 : 얇고 긴 몸통에 얇은 쪽 양 끝부분이 뾰족하여 가시와 같은 이미지를 준다.

6번 씨앗, 백당나무형 : no.2와 비슷해 보이지만 홈의 반대편에 조그마하게 튀어나온 작은 돌출부가 있으며 하트모양과 유사하다.

7번 씨앗, 가시오갈피형: 타원이나 원이 반으로 쪼개진 형태로써 반달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8번 씨앗, 겨이삭형 : no.5처럼 얇고 긴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얇은 쪽 양 끝단 중 한쪽이 둥근 형태이며 마치 바늘과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다..

9번 씨앗, 구실잣밤나무형 : 대표적인 씨앗의 형태이며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방울의 형태와 유사하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분류한 씨앗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 또는 연상되는 이미지를 구체적인 사물에 대입하였으며 분류된 씨앗에 의한 연상되는 이미지로써는 몇꽃잎, 강낭콩, 방울, 과일, 가시, 하트, 반달, 바늘, 물방울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씨앗의 형태에서 구체적인 사물로 도출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굽 디자인의 형태 및 명칭 등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2) 한국 씨앗의 조형적 특징에 따른 도안화













씨앗의 직관적인 느낌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씨앗의 단면을 간략화하였으며 특징적인 외곽선만으로 도안화를 시도하였다. 도안화된 씨앗의 단면도는 최종적으로 면적이 작은 굽에 적용될 도안이기에 도자기의 측면라인과 바닥 면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형을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예를 들면 【표2】의 no.3의 경우처럼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둥근 부분을 정 원형으로 단순화하였는데 이러한 예와 같이 다른 도안화 작업에 있어서도 모든 씨앗의 전체적인 형상은 원형을 변형하여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씨앗의 이미지를 특징지을 수 있는 외형의 이미지를 더해 기하학적 형태의 도안으로 구체화하였다.

no.4의 경우는 돌기처럼 튀어나온 줄기를 얇은 막대 형태로 선을 간략화해서 이를 대칭 형태의 기하학적 도안으로 단순화 하였으며, 【표1】의 구분기준점과 같이 단순화된 도안들이지만 각자의 특징을 잃지 않도록 씨앗의 핵심적인 특정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안의 이름을 명명할 때 형태적 유사성이 있는 명칭을 붙여 이름만으로도 그 모습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굽의 명칭으로서는 연상되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벚꽃잎굽, 강낭콩굽, 방울굽, 과형굽, 가시굽, 백당굽, 반달굽, 바늘굽, 물방울굽으로 칭하였다. 또한 도안화 된 씨앗의 형상은 기(器)의 몸체와 이어지는 굽 또는 바닥면의 도안에 따라 조각하여 발의 접지면 모양으로 활용하였다.

【표2】 씨앗의 특징에 따른 도안화 작업

no	형상		도안
1			
벚꽃잎굽			
2			
강낭콩굽			
3			
방울굽			
4			
과형굽			
5			
가시굽			

6			
	백당곶		
7			
	반달곶		
8			
	바늘곶		
9			
	물방울곶		

2. 굽의 분류 및 조형성 연구

1) 굽의 의미와 기능

굽은 접시나 발 등의 하단부위와 바닥 면에 접촉하는 부분을 일컫는데 다완이나 발 등의 굽은 도자기의 감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굽의 종류는 제작방법과 굽의 형태에 따라 하나의 도자 양식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유물의 시기를 가늠하는 고고학적인 지표로도 사용될 만큼 시대적 기풍이나 제작자의 제작환경, 미의식, 습관, 기술의 정도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형태의 굽이 전해지고 제작되기에 대략적인 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굽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굽이 기물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거에 “굽”이라는 말은 “받침”의 뜻과 유사하게 쓰여졌으나 엄연한 의미에서 받침은 한 물건을 받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물건이고 굽은 용기의 몸체 하단에 있는 구조를 말한다.²⁾ 굽은 기형의 안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기(器)의 여러 조형 요소 중 하나인 굽이 수많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속에서 그 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도자기의 가치는 대부분 외관의 형태나 문양, 유약 빛깔에 중점을 두었기에 굽과 바닥은 소외되기 쉬웠다.

그러나 실제로 몸체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선의 흐름이 결정지어지는 것은 굽의 넓이와 높이와 큰 연관이 있다. 기물의 높이가 같다고 보았을 때 동체부에서 보여지는 측면의 선은 바닥이 좁을수록 흐름이 길고 유려하고 넓을수록 짧고 담백하다. 또 유약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된 굽은 마감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준다.

2) 김소연, <굽장식 용기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4



【도판 1】 고배(高杯)의 예시

도자기의 감상에 있어서는 구연의 형태, 외형의 곡률, 상하 비율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굽의 형태에 의한 변화 또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굽은 단지 기형의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도 도자기의 조형적 미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심미적인 이유로 형태가 결정되는 것과 반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굽의 기능적인 형태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배(高杯)를 들 수 있는데 고배의 굽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은 굽에 있어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배(高杯)는 일반적인 낮은 굽과는 다르게 높은 굽의 기물로서 예로부터 신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을 위한 격조 높은 물품으로 여겨졌다. 가야토기의 고배(高杯)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실용기가 아닌 제기로서 의례를 위한 기물로 쓰였던 고배(高杯)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높이가 낮아지며 점차 실생활에 스며들었다.

일본 에도시대의 관요(官窯)에 해당하였던 나베시마번(鍋島藩)의 제품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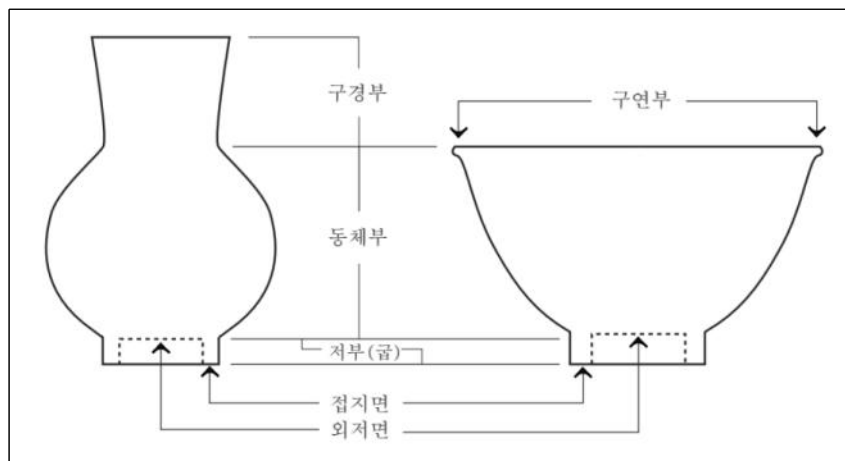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나베시마번의 자기들은 영주들이 사용하는 어용(御用)도자기로서의 품격을 나타내기 위해 높은 굽에 칠보문 등과 같은 격조 높은 문양들을 배치하여 권력과 부를 상징하였다. (【도판1】 참조).

이와같이 굽에는 그릇의 “안정성”을 위한 기능 이외에도 “조형성”과 “상징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굽의 형태 분류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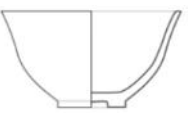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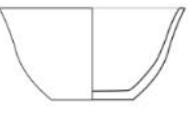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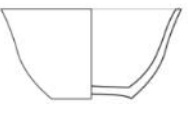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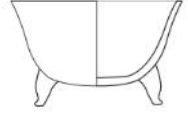
굽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독특한 조형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굽의 목적과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많은 방법으로 분화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굽에서 볼 수 있는 장식성과 조형성을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굽의 형태적인 분류와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굽의 형태 및 명칭은 매우 다양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도판2】와 같이 도자기의 구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도판2】 도자기 형태 명칭

【표3】 굽의 단면도와 특징

	명칭	단면도	특징
직립 굽	직립굽 (대표예시)		저부에 튀어나온 동체부에 굽이 붙어있는 형태
	팔(八)자굽		굽다리, 고배(高杯)라고도 불리며 저부인 굽이 높고 큰 형태. 길이 때문에 사선형이 많음
	죽절 (竹節)굽		동체부 쪽의 굽을 한번 깎아낸 것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대나무굽이라는 명칭이 붙음. 주로 발(碗)이나 찻잔에 많이 사용
	이중굽		안쪽으로 더 작은 크기의 굽이 하나 더 붙어있다. 면적이 넓은 판의 형태를 소성 시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해무리굽		접지면이 일반 기물에 비해 넓고 외저면의 중심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평평한 형태. 조선 시대 막사발에 나타남
평 굽	평굽 (대표예시)		저부의 중심을 약간 오목하게 만들거나 일자로 편평하게 만든 형태
	오목굽		외저면이 동체부 쪽에 직각으로 파이지 않고, 안으로 오목하게 완만한 경사로 들어간 형태
안 (속) 굽	안 (속)굽 (대표예시)		외면에서 굽이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서 동체부 쪽으로 외저면만이 들어가 있는 형태
굽 장 식	굽장식 (대표예시)		동체부에 굽을 따로 조형하고 붙여진 다리

【도판2】의 도자기 구조 중 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부(굽), 접지면, 외저면 부위를 들 수 있는데 동체부(胴體部)는 굽의 모양에 따라 형태적 변화를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으로서 굽이 가진 조형성과 연관이 가장 큰 곳이다. 동체부 아래의 저부는 보통 굽의 형태 및 조형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대개 그림 또는 조각 등을 통해 굽의 특징을 보여준다. (【도판1】 참조)

접지면은 바닥에 닿는 부분으로써 대개 단순한 형태의 띠모양이 대부분이지만 제작방법에 따라서는 【도판3】의 「청자 양각 도철문 향로」와 같이 매우 장식적이며 조형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저부에 접지면과 이어지는 굽 안쪽의 외저면은 굽의 형상 분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표3】의 오목굽을 보면 같은 평굽에 해당하는 하나 외저면의 형태에 따라 하나의 분류기준이 되기 한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굽에 해당하는 저부, 접지면, 외저면은 굽의 형태 및 분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굽의 형태를 【표3】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이에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굽의 분류에 있어서는 외형의 범주를 설정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진 굽을 분류하여 직립굽, 평굽, 안굽, 굽장식 등 총 4개의 군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여기에 파생된 굽의 하위군집을 팔자굽, 죽절굽, 이중굽, 해무리굽과 평굽에는 오목굽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도판3】 “굽장식용기”의 사례

이외에 한 분야에만 집중분화 된 굽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찻사발과 관련하여 명명되는 굽들 중 다수는 찻사발에만 한정되어 제작되는 것들이 많았다. 이처럼 한 종류의 같은 기에 한정된 굽 명칭은 포괄적인 분류에 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였다.

【표3】의 굽들 중 “굽장식”³⁾의 굽은 굽의 조형적 미감을 표현함에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제작방식은 굽장식이라고 하는 다리를 따로 만들어 동체부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현소재로서는 곡선, 동물, 기둥 등이 있다. 다리의 붙이는 숫자에 따라 삼족, 사족, 삼발과 같은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외에 연구자가 주목한 굽으로서 【표4】의 굽 형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굽들은 굽장식의 유형처럼 발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는 하나 붙인 것이 아니라 직립굽 또는 안굽 형태의 굽을 깎거나 조각하여 저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표4】 조각 및 절단에 의한 수직굽과 안굽

직립굽	안굽
	
백자거치문육각향로 조선17세기_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잔과 잔받침 고려12세기_국립중앙박물관
	
백자 툽니문 장식 제기 조선17세기_국립중앙박물관	백자청화팔각사군자문연적 조선17세기_국립중앙박물관

- 3) 일반적인 다른 용기에서의 기능과 달리 별도의 굽을 형성하여 부착한 형태로 그것에 여러가지 장식을 하여 다양한 조형성을 나타내고 있는 용기..
- 4) 김소연, <굽장식 용기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4

이와같이 투각과 조각 등에 의한 굽 장식은 단순한 굽의 기능을 떠나 뛰어난 장식성과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절단된 굽은 띠 모양의 일반적인 굽과는 달리 분할된 굽 부분에 독특한 조형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분할된 굽 부분의 저부와 접지면, 외저면에는 구체적인 사물 또는 이미지를 조각 또는 투각 등으로 표현 할 수 있기에 직립 굽과 안굽 형식의 굽들은 본 연구의 모티브인 씨앗 등의 구체적인 사물의 표현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3. 씨앗의 이미지를 적용한 굽 디자인과 이를 이용한 차 도구 디자인

1) 씨앗의 이미지를 적용한 굽의 형상

씨앗은 생장과 죽음이 반복되는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미감이 담긴 다양하고 개성적인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과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의 이미지를 도안으로 단순화하여 도자기의 굽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씨앗의 형상을 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립굽과 안굽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4】의 굽들을 보면 저부의 표현에 있어 저부의 측면부를 절단하거나 절단된 저부에 문양형태 등이 조각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직립굽 또는 안굽의 유형으로 굽을 제작하고 저부의 접지면에 씨앗의 형상에서 도출된 도안을 조각으로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굽의 측면부가 아닌 접지면을 조형표현의 영역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차도구의 사용에 있어 사용 후에 용기를 뒤집어 정리하는 경향이 많기에 차를 마신 이후 차도구의 정리에 있어서도 즐거움과 미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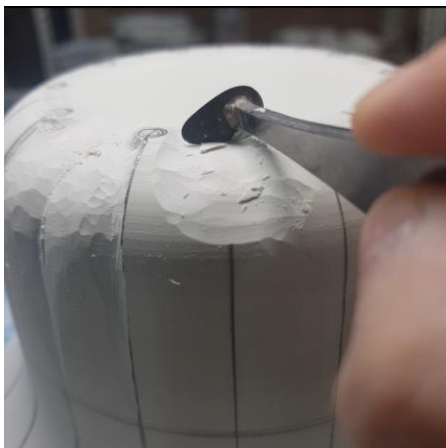
접지면을 특정한 형태로 조각할 경우 도자기의 바닥을 뒤집어 밑을 보면 조각된 도안의 형상을 제외한 부분은 유약으로 덮혀 굽의 형태가 뚜렷한 형상을 갖는다. 또한 깎여진 다구의 바닥은 반복되는 도안이 무늬와 같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씨앗의 이미지로 조각된 굽은 접지면 외의 부분은 모두 제거되어 저부의 형태가 마치 사람의 발처럼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바닥면이 조형표현의 중심이 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서 뒤집어 놓았을 때 보여지는 조형적 미감이 바로 놓여졌을 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동체부의 디자인을 통해 굽을 더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강

조각기 위해 조각과 면치기를 시도하였다. (【도판4】 참조)

접지면의 개성적인 조형표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씨앗 도안의 바깥 방향 쪽 모양이 면이나 선으로 동체부와 같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물을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발의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면과 선을 굵에서부터 동체로 잇는 선을 강조함으로써 각각의 굵에 특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접지면을 조각할 수 없는 평굽을 제외한 수직 굵과 안굽 모양을 위주로 저부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깎여진 저부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각을 나눌 때 항상 짝수의 각을 치고 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깎아서 마치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굵을 만들었다. 나누어진 각의 반절, 또는 반에 반 정도를 씨앗 형태의 굵으로 남겨 조각하고 나머지는 굵 부분도 깎아냄으로서 확실한 구별점을 만들었다. 각을 꼭 짝수 각으로 하는 이유는 발사이에 나뉜 각과 면의 수가 짝수일 때만 동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짝수를 유지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무늬처럼 조각된 바닥의 모습이 단순 원이나 선의 느낌보다는 역동적이며 조밀한 느낌이 나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굽장식”과는 달리 동체부와 저부를 따로따로 붙인게 아니라 이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형태가 겹돌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몸처럼 유려한 형태의 굵을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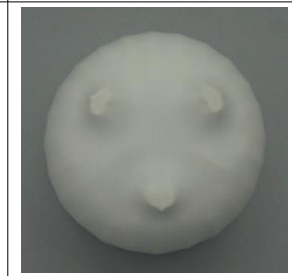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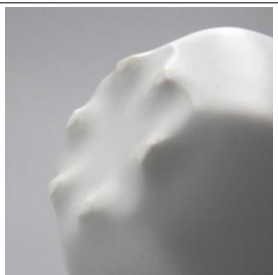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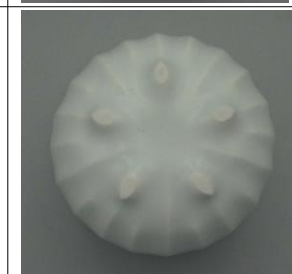
【도판4】 과형굽 면치기 과정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장에서 도출된 대표적 9종류의 씨앗형상 도안을 활용하여 굵의 바닥면에 조각에 의한 방법으로 씨앗의 조형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표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굵의 저부에 표현된 조각을 통해 씨앗의 형상적 이미지표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차도구의 굵으로써 조형성 및 기능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5】 도안에 따른 굽의 형상

명칭	조형 도안	굽의 형상		
		세부면(細部面)	측면(側面)	기저면(基底面)
벚꽃입굽				
강낭콩굽				
방울굽				
과엿굽				

가 시 굽				
백 당 굽				
반 달 굽				
박 혀 굽				
뿔 방 우 굽				

2) 씨앗의 이미지가 굵에 적용된 차도구 및 작품해설

본 연구에서는 씨앗의 이미지를 차도구의 굵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차도구와 같은 음용도구가 굵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도자기들은 실용기이거나 오브제라도 바닥에서 들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실용기의 경우 대부분 식탁에 두고 수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사용한다. 따라서 굵의 조형적 미감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손으로 들고 마시는 행위에 목적이 있는 음용도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를 마시기 위해 제작된 도구들은 잡고 들어서 붓거나 마시는 행위가 주된 사용법이다. 또 그 속에서 형태를 면면히 살피는 것 자체가 즐거움으로 여겨지며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서 굵의 밑면이 보여지고 더구나 상대방의 음용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굵의 조형미는 일반적인 전시에서 느껴지는 느낌과는 다른 미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씨앗의 이미지가 적용된 굵은 대략 3종류의 차도구에 적용하여 보았다. 먼저 전통적으로 잎차를 마실 때 필요한 다구(茶具)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두 번째는 간소화하여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다구, 세 번째는 요즘의 식기와 어울리는 다구, 등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한국의 차 문화는 옛부터 끊임 없이 내려오던 중국, 일본과 달리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단절되기도 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 와서도 제대로 된 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차도구 구성에 있어서는 잎차의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전통적인 차도구 구성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이외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식생활과 어우러지는 다구도 필요성을 생각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구의 구성도 포함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차도구의 구성으로써 다관(茶罐), 숙우(熟盂)⁵⁾, 다선(茶船)⁶⁾, 거름망, 개치(蓋置)⁷⁾ 등을 고루 갖춘 차도구의 세트구성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외에 개완(蓋碗)⁸⁾, 쾌객배(快客杯)⁹⁾과 같은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도구를 제작했다.

최근 편리성 강조되는 티백(tea bag) 등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저그(Jug)를 기본으로 인퓨저(Infuser) 등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는 1장에서 단순화한 도안을 바탕으로 씨앗 형태의 특징과 어울릴 수 있는 다구를 디자인하였으며 차도구의 각 세트마다 한 종의 씨앗 도안으로 통일하여 제작하였다.

도면을 바탕으로 손잡이와 같은 형태는 수작업에 의한 석고 작업을 하였으며 주전자의 몸체와 같은 실린더 형태는 석고 제형기를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하였다. 몸체의 외형 라인을 모두 깎아낸 후에는 각 또는 면을 치는 도구를 이용하여 도면에 디자인한 각의 개수만큼 나눈 후, 몸통은 씨앗 도안 형태에 따라 나누어진 각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움푹 파내거나 선을 깎아 들어가 볼록 나눈 모양으로 조각하였다. 바닥 굽은 짝수로 나누어진 각에서 몸통의 크기에 가장 적절한 수로 배분하여 발의 개수를 정하였다. 조각이 끝난 석고는 성형에 가장 적절한 주입성형법을 택하여 몰드를 제작하였다.

캐스팅되어 나온 기물을 초벌 한 후 각을 친 외형에 유약으로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두껍게 시유한 후 재벌소성하였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9종류의 씨앗을 모티브로 차도구의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다양한 이미지의 씨앗형태의 굽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굽의 조형적표현 내용은 다음과 같다.(작품해설 참조)

-
- 5) 다관 내의 찻물을 부어 농도를 균일하게하여 다시 찻잔에 따를 때 사용함.
 - 6) 다관을 올려 놓는 용도로 뜨거운 찻물이 든 다호가 바닥에 바로 닿는 것을 방지하는데 쓰임.
 - 7) 다관이나 개완의 뚜껑을 열었을 때 올려놓는 도구
 - 8) 중국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기의 하나로, 뚜껑이 있는 찻잔같은 형태.
 - 9) 개완과 비슷한 모양의 개량형으로, 개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손잡이 부분과 주둥이 부분을 제작하여 손이 뜨겁지 않고, 잡기 쉽게 만들어진 것.

《작품해설》



【작품 1】 씨앗굽 찻잔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본 작업은 9종류의 씨앗굽 형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동일한 몸체에 굽만 변형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똑같은 크기의 몸체에 각각의 씨앗형상에 의한 굽의 형태에 따라 어떠한 느낌을 얻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저부를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찻잔의 모양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뒤집어 놓았을 때 작은 씨앗들이 조형적 특징과 재미있는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찻잔의 경우 음용 후 건조를 위해 뒤집어 두는 일이 잦아 바닥의 씨앗 굽 모양을 잘 관찰하기에 가장 용이하다.



【작품 2】 둥근 원통형 과형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표5】의 과형굽은 도안의 형태가 꼭지가 달린 과일의 모양과 유사하여 과형굽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촘촘한 간격으로 각을 친 둥근 원통형 다관을 중심으로 잔과 다해 등은 약간 넓은 세로의 라인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대비되는 느낌을 주도록 제작하였다.

과형굽의 적용에 있어서는 안굽 형식을 이용하여 돌기 부분을 바닥에서 동체 부 쪽으로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택하였다.



【작품 3】 주자형 과형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과형굽을 적용한 주자형 다관이며 좁고 긴 물대, 구경부와 둥글고 통통한 몸통의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몸체의 분할된 선에 의한 강약의 느낌이 느껴지도록 의도하였다. 구경이 작고 긴 입구를 가지고 있어서 다관 자체에서 잎차를 우려내기보다 냉침한 차물을 담기 위하여 제작한 형태로 우려진 차물을 따라내는 것에 더 용도를 부여하였다. 좁고 긴 물대는 가늘고 휘어진 큰 포물선으로 물을 따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곡선적인 느낌의 출수를 기대할 수 있다.



【작품 4】 주자형 물방울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물방울 굽은 측면부 모양이 9종류의 굽들 중 가장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특징을 가졌다. 다관과 숙우의 하부 몸통이 발처럼 보이는 굽과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섯 개의 물방울굽 다리를 배치하였으며 전체적인 이미지는 표주박을 모티브로 하였다.

다관의 물을 추가로 보충할 때 뚜껑을 놓아두는 개치를 제작하였으며 엽전 형태의 씨앗굽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5】 가시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안굽의 형태를 이용한 다관으로서 가시굽이 가진 얇고 긴 형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다관에 보여주고자 기존의 굽들처럼 몸통에 각을 치지 않고 가시굽을 이용하여 마치 꽃잎처럼 벌어진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굽의 형태를 뚜껑에도 반영하여 저부의 분위기가 뚜껑에서 보여지도록 하였다.

각이 없는 다관의 경우 매트한 표면을 가진 유약보다는 광택유가 유면의 균질함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광택유로 시유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6】 상파형 방울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방울 모양의 원형 굽을 8각으로 나눈 모서리에 하나씩 굽을 배치하였으며, 굽의 안쪽으로 하나의 라인을 더 설정하여 두 개의 이중굽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다관을 들거나 차를 따를 때 이중굽으로 배열된 점형 무늬의 조형적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6】 처럼 굽의 형태가 잘 볼 수 있도록 저부와 유사한 형태로 뚜껑을 디자인하였다. 넓적한 저부의 형태로 인해 후파형 손잡이보다는 상파형이 안정감을 줄 수 있기에 금속손잡이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어울리는 짧은 물대를 부착하였다.



【작품 7】 후파형 방울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방울굽을 적용하였으며 씨앗굽의 둥근 외형과 어울리도록 구모양의 동체로 디자인 하였다. 총 4개의 굽을 바닥에 배치하여 4족 형태의 다관으로 제작 하였다. 방울굽 다관의 형태에 담백한 분위기의 손잡이를 달기 위해 기존의 C자형이 아닌 ㄱ자 모양의 손잡이를 부착하였으며 전체적인 조화를 위하여 뚜껑 손잡이도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하였다.

다선은 다관을 올려놓는 용기로서 본 작업에 있어서는 무게의 균형감을 주기 위하여 이중굽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8】 후과형 강낭콩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강낭콩굽의 외곽 라인은 돌기가 없고 둥글둥글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동체부로 잇기 위해 홈이 파인 부분을 바깥으로 배치해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마치 선처럼 올라가는 형태로 다해를 제작하였다. 다관도 통일감을 주기위하여 다해의 제작방법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선의 외곽 부분이 둥글게 튀어나온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둥근 다관이 잘보이도록 다해는 구연부가 바깥으로 열린 형태로 면을 깎아 표현하였다.



【작품 9】 횡과형 강낭콩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강낭콩 굽을 적용하여 참외형의 길쭉한 동체부를 제작하였다. 세로로 긴 형태의 다관 입을 감안하여 물이 담겼을 때 무거워 들기 힘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잡이를 위로 부착하여 무게 중심이 잘 잡히도록 하였다. 굽의 표면에 있어서 저부의 씨앗 형태를 뚜껑으로 제작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찻잔의 형상에 있어서도 길쭉한 다관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좁고 긴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좁고 긴 형태의 잔은 차의 향을 잘 머금고 있을 수 있으며, 마신 후에 향기를 잘 맡을 수 있도록 구연부 쪽으로는 열린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10】 벚꽃잎굽 개완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벚꽃잎굽은 명칭 자체에서 보여지듯이 꽃잎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제작에 있어서도 5개의 발 형태를 조각하여 바닥에 배치해보면 벚꽃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잎차를 빠르고 간단하게 우려낼 수 있는 편리한 다구 중 하나인 개완은 뚜껑을 소성할 때 가마에서 내화판에 굽처럼 닿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보통 몸체와 닿는 부분이 바닥이 되기 마련인데 본 작품에서는 뚜껑 손잡이 부분을 바닥으로 하여 굽을 조각하였다. 뚜껑 중 몸체와 닿는 부분은 차와 가장 많이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찻물이 들기 쉬운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몸체와 닿는 부분이 유약으로 덮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작품 11】 바늘굽 저그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저그(Jug)는 일반적으로 구성을 다 갖추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용 도구이다. 저그는 여유로운 찻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티백이나 인퓨저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작업에서는 차거름망을 포함한 저그를 제작하고 다수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950ml의 대용량으로 제작하였다. 마시고 남은 차를 보관하기 편하도록 뚜껑을 제작하였으며 차를 우려낸 후 인퓨저를 거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뚜껑 손잡이 부분을 굽으로 디자인하였다. 굽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수의 바늘굽을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가느다란 형태의 굽이기에 크고 넓은 저그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작품 12】 반달굽 다관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반달굽은 반월형의 형태로서 접지면 도안의 모양 중 둥근면을 내부로, 직선면을 외부 쪽으로 위치하도록 하여 굽의 바깥쪽에 위치한 직선면을 이용하여 동체부로 이어지도록 면치기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씨앗굽과 어우러지는 각을 총 세 가지 형태로 제작하여 외형의 분위기에 변주를 주고자 하였는데 한가지는 안쪽으로 파인 형태 또 하나는 밖으로 볼록한 형태 마지막으로는 【작품 12】와 같이 곡선이 없는 직선적인 면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13】 물방울굽 저그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물방울굽을 적용한 소형의 저그로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차거름망을 생략하였으며 350ml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저그는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잔은 저부를 호박 모양으로 동그랗게 각을 쳐서 좁은 각의 면적이 오돌도돌하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작품 14】 백당굽 여행용 1인다기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개완처럼 잎차를 우려기 편하게 해주는 형태의 다기로서 잔과 다관의 역할을 하는 몸통이 하나의 세트로 합쳐져 이동 시에 가지고 다기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쾌객배라고 하는데 보통 몸통에 개완과 같은 날개가 없고 검지와 엄지로 잡을 수 있는 두꺼운 돌출부가 있지만 본 작품에서는 저부의 씨앗굽과 잘 어우러지도록 날개 형태를 더해 제작하였다.



【작품 15】 과형굽 오일램프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오일램프는 차도구의 구성품 중 하나로 찻자리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물품이다. 본 작품의 형태는 좁고 길거나, 낮고 넓은 동체부의 형태로 실제 다관으로서의 불편한 형태이나 조형적 미감이 있기에 오일램프의 형태에 적용해보았다. 또한 차를 우리는 용도인 다관이나 찻잔에서는 찻물이 잘 들기 때문에 기피하였던 매트유를 얇게 시유하여 매트한 색조로 기형의 라인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6】 씨앗굽 개치 세트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개치는 개반이라고도 불리며 다관으로 차를 우릴 때 위생적인 이유로 뚜껑이 바닥에 놓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이다. 다구들은 정해진 용도와 기능이 있기에 일정한 기형의 형태가 정해져있다. 반면에 개치는 단순한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에 엽전 형태를 모티브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엽전 중앙부의 구멍을 통해 뜨거운 수증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 17】 상과형 과형굽 다관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상과형 형식의 다관에 금속손잡이를 부착함으로써 기능성 부여는 물론 금속과 도자의 재료적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조형적 미감을 위하여 금속손잡이의 높이는 다관의 높이와 동일한 비율로 제작하였으며 얇은 두께로 선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상과형의 다관은 후과형보다는 동체의 라인이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에 따라 작고 조밀한 굽의 부분 역시 보다 선명히 보이는 경향이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씨앗의 형상적 모티브와 도자기의 구조 중 하나인 굽이라는 요소의 접목을 통해 조형적 미감과 실용성을 가진 차도구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씨앗은 식물의 요소 중 꽃, 열매, 나뭇잎 등에 비해 조형 표현의 소재로써 간과되어온 부분이 있다. 그러나 씨앗의 생태학적 특징과 형상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씨앗만이 가지는 독특한 조형적 미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굽에 있어서도 조형적 표현을 통한 도자의 특질을 부여할 수 있음을 옛 도자기의 굽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그림과 조각 등의 장식방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의 형상화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씨앗의 형상화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굽의 저부 또는 바닥면에 조각을 하는 경우 바로 놓여졌을 때 느껴지는 굽 형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면치기 또는 각치기 등의 방법으로 도자기의 동체와 굽으로 연결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바닥면에 장식된 굽의 형상은 차도구와 같이 들고 마시거나 뒤집어서 정리 보관하는 차도구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면 일반적인 미감을 가진 차도구와 달리 차별화된 조형적 미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마시는 행위 도중에서 보여지는 굽의 미적 아름다움과 뒤집어서 정리된 상태의 굽의 조형적 미감은 차 도구의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다.

차도구의 제작에 있어서도 음용방법에 관한 “전통적 방식”과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차도구의 구성 및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작품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씨앗형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형(器形)의 모색과 태토(胎土)의 연구를 통한 소재실험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립수목원, 《한국의 야생식물 종자 도감》, 2017

학위논문

김소연, <급장식 용기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ABSTRACT

A Study on Foot Motif form Seed Image - Focusing on Tea Instruments

Kim Ga Eu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ea culture in South Korea has so far maintained despite a series of disconnection and difficulties. However, its identity could not be summarized in a single word due to such historical reasons. By contrast, unique use of tea instruments characterized by their respective drinking methods lay a crucial groundwork in using and developing tea instruments in China, Japan and Europe where tea cultures have been well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author explored materials for molding expression and focused on foot that can present the possibility of new tea culture in designing tea instruments used in ordinary lives.

Modeling aesthetics of seeds hardly used as materials for molding expression were reassessed and a process of representation was proposed based on the features of geometrical shapes presented in this study. With

regard to specific methods on the suggestion of tea instruments, unique molding aesthetics and practical use would be granted to a process of work on representing motifs of seeds on base parts and bottom parts pertaining to foot.

As specific forms of foot, a variety of foot forms were proposed through cutting and sculpture contrary to the previous stripped foot. By applying the elicited foot image in other parts of foot, seed images were intended to be expressed in all the tea instruments.

In the process of representing seeds, diverse seed feet were proposed in forms of simplified geometrical frames based on actual seed forms. In addition, type of foot being handed down was classified as a subject and appropriate type of foot was selected in order to suggest types of feet appropriate for the seed forms elicited.

In terms of production methods, sculpture methods for highlighting molding features seen from seed forms, colors and concentration of glazes were attempted to make expressions.

As such, this study examined ways to express molding features as well as functions of feet motivated by seeds by producing works of art. In addition, it explored the possibility of the role of feet constant forms in serving as tea instruments and of granting molding implications, and thereby suggest new tea instrument designs based on convenience in ordinary lives.